

자연공원과 야생조(25)

빨쇠오리

글·사진 : 이 정 우

학명 : *Synthliboramphus wumizusume*

영명 : Japanese Murrelet



1983년 5월 초순.

인적 미답의 무인도에서 만난 빨쇠오리는 일생에 한 번쯤 맛 볼 수 있는 감격이었고 환희였었다.

그것도 그럴 것이 이 새는 지구상에서 일본의 규슈와 이조반도의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번식하는 새로운 국제조류보호회의의 적색자료목록 부호 제 70호로 등록된 세계적인 희귀조류이기 때문이었다.

국내의 관찰기록으로는 1884년과 1974년 단 두 차례가 있었고, 그들의 생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억 밖의 새였었다.

중국의 닭소리가 들린다는 한반도 최서남 가거도에서도 한 시간쯤 쪽배를 타고 떠난 뱃길에서 만난 섬 구굴도에 상륙을 하여 사초 군락 밑에 뚫린 땅굴에서 찾아 낸 새 빨쇠오리는 두 개의 알을 안고 있었다.

장시간 말문이 막히는 흥분 속에서 또 한 번 감격스러운 일은 한 개의 알에서 새끼가 구멍을 뚫고 부화가 되기 시작하였는데, 생태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였었다.

이날이 1983년 5월 12일 낮 11시였다. 동행했던 취재진들은 대어를 낚았고 만감이 교체하는 감격은 그 후 1984년 8월 10일자로 천연기념물 제 341호로 바뀌게 되었다.

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의 구굴도 빨쇠오리, 습새, 바다제비 번식지는 예기치도 못한 무인도 답사에서 얻어진 승리였었다. ♣



약력 · 이 정 우

조류연구가
삼육대학 교수